‘무료 아닌 무료 사진 촬영’…감성자극 고액 편취 기승

과대 광고 통한 결제 유도 사진촬영 민원 올해 230여건
한국소비자원 “광고 현혹 주의·계약서 약관 확인” 당부

“한 달 전부터 촬영 날만 기다리시던 부모님이 눈에 밟혀 고액 상품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SNS에 ‘무료 사진 촬영’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마지막 결제과정에서 고액의 액자와 앨범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관의 ‘감성 자극’ 수법에 소비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2019년 150건 ▲2020년 157건 ▲2021년 198건에 달했고, 올해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 광고는 SNS에 ‘부모님과 가족분들 나이 합산 100세 이상 무료’, ‘휴대폰 번호에 숫자 0이 들어가면 무료’ 등의 문구로 게시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당첨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돼 촬영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고액의 액자와 앨범이 포함된 패키지 비용을 지불한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A씨는 “막상 촬영이 끝나니 기본 구성보다 훨씬 좋은 액자와 앨범을 보여주며 110만원을 달라더라. 1시간 넘게 촬영하느라 고생하신 부모님도 옆에 계셔서 좋은 걸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음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서 취소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업체가 내세우는 혜택은 28×36cm 정도의 액자 1개와 사진 1장, 무료 촬영 등으로, 의상과 헤어·메이크업의 포함 여부는 업체별로 상이했다.

SNS 이벤트에 참여한 B씨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업체에 촬영비 3만원을 선입금한 B씨는 촬영 전 20만원 상당의 액자, 리마인드 웨딩 무료 촬영, 제주도 여행상품권 등을 문자로 전송받았다.

하지만 B씨는 촬영이 끝나고 원본 사진, 액자 등 추가 옵션을 강요받아 업체가 제공한 혜택의 6배에 달하는 12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무료라더니 원본 사진을 받기 위해서는 인당 1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결국 이것저것 추가 하다보니 풀패키지 비용인 120만원을 결제하고 왔다”며 “이벤트를 신청한 건지, 정식 촬영을 신청한 건지 헷갈렸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업체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원본 파일을 전달받은 뒤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를 하고있는 한 업체는 “자세한 내용은 당일에 오셔야 알려드릴 수 있다. 이벤트 내용대로만 하면 무료다”고 말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선 대답을 회피했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무료 촬영’과 관련된 사례들은 ‘리마인드 웨딩 무료 촬영’, ‘무료 만삭 사진 이벤트’, ‘아기 100일 사진 이벤트’ 등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가족사진 촬영이라고 광고한 후 현장에서 큰 액자나 원본파일 제공 등 추가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능기부’, ‘이벤트’, ‘당첨’ 등의 단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촬영장에 방문하기 전 촬영, 원본 파일, 액자크기 등 무료 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사랑 수습기자

여아 추행 성범죄 전과자 징역 5년

여아를 추행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판사 허정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8월 고흥군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순천=남정민기자

‘근무지 이탈’ 경찰 간부 견책

광주경찰청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동부경찰서 A 경감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감이 근무 시간 중 담양에 있는 자신의 전원주택에 수십차례 드나들었다는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여 진정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전원주택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진정인이 제기한 ‘경찰관 품위훼손’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은 불복 절차인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오복기자

폭설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기습폭설 시 피해발생 및 도로정체 상황 등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용두-담양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서 실시된 가운데 사고 현장 주변에 제설용 모래를 뿌리고 있다. 이날 훈련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민간드론운영지원단, 북부소방서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김애리 기자

화물연대 파업 밤샘주차 광주서 115건 적발

전남서는 운송 방해 조합원 5명 형사입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에 접어들면서 광주 자치구도 도로 주변에 늘어선 파업차량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광주 각 자치구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밤샘주차(0-4시) 단속에서 총 115건이 적발됐다.

다수 산업단지와 대형 사업장이 있는 광산구가 44건을 직접 적발하고, 경찰이 넘긴 32건을 행정처분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주변 차로를 점거한 파업차량에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북구는 코카콜라 광주공장 주변 등지에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23건을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 사전 통보, 담당 지방자치단체 이첩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구는 기아 광주공장 일원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밤샘주차 16건을 단속했다.

파업 여파가 크지 않은 동구와 남구에서는 승용차 등 일상적인 밤샘주차 단속만 이뤄졌다.

전남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비조합원을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됐다.

파업 이틀째인 지난달 25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순천 요금소에서 회차 중인 화물차 기사가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1일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 한 화학공장 입구에서 조합원 2명이 비조합원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전남경찰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당한 보복이나 피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복기자

‘10대 금은방 절도’ 공범 2명 추가 검거

훔친 귀금속 처분 역할 맡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에 이어 훔친 귀금속을 팔아주기로 한 공범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특수절도)로 A(19)씨와 B(19)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3시19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 금은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이 귀금속을 훔쳐오면 장물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혐의다.

당초 이들은 동생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교사범으로 의심받기도 했으나 조사 결과 범행을 함께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C군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내자 수리비를 갚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도 세웠다.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가져올 사람, 망을 볼 사람, 장물을 전달받을 사람, 장물을 판매할 사람 등 각자 역할을 맡았다.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C군은 유튜브 등으로 금은방에 침입할 방법을 사전에 파악했다. 이들은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도주가 용의한 곳, 내부가 밝은 곳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C군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장을 차례로 깨고 15초만에 진열된 3천여만원(추정)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평소 C군을 따르던 초등학생 D(12)군이 범행을 함께 했고, 중학생 E(15)군은 주변에서 망을 봤다. 세 사람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 남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A씨에게 훔친 귀금속 일부를 건넸다. A씨는 또 다른 장소에서 B씨를 만나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을 실행한 C군 등 3명을 우선 긴급체포한 뒤 C군을 구속하고 D·E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전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B씨의 역할 등이 드러났다.

경찰은 자진 출두한 A·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복기자

목포시내버스, 연료비 체납…또 운행 중단 위기

최근 파업 종료로 운행을 재개한 목포시내버스가 또 다시 운행 중단 위기에 처했다. 시내버스 업체가 압축천연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목포도시가스에 따르면 시내버스 연료비 체납이 지속돼 오는 10일까지 가스충전소 측 연료비 체납금 미납 부시 연료 공급 중단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가스충전소 측이 목포도시가스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10월말 기준 19억2천여만원, 목포시내버스 측이 가스충전소 측에 지급하지 못한 버스 연료비 대금은 약 22억2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소를 통해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목포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 신안여객, 무안교통, 하나관광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 업체다. /목포=정해선 기자